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음악정책*
 - 국민가의 제정과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

이 지 선**

koto@sm.ac.kr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3. 조선의 가요정화운동과
국민가의 보급 |
| 2. 일본의 국민가의 제정과
보급 | 4. 맺음말 |

Key Words : 국민가(national song), 가요정화(song purification system),
 악곡 현상모집(national song contest)

1.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제국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음악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전시 하의 음악 정책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국민총동원을 위한 음악의 활용, 내무성, 정보국 등의 국가기관과의 관련, 음악분야의 국책협력 등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기에 일본과 조선에서 행해진 음악의 통제 및 보급정책에 대해서 관제음악인 ‘국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¹⁾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을 받은 것임(과제번호 KRF2008411-J00702).

**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일본문화 전공

1) 지금까지 국민가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일본측 연구로서 倉田喜弘(2006) 『日本レコード文化史』 岩波書店, 津金澤聰廣(1999) 「メディア・イベントとしての軍歌・軍國歌謡」

음악, 특히 노래라는 매체는 소리로써 전달되기 때문에 대중을 선동하고 세뇌하는데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일본은 이념적인 사상이나 선동 내용을 음반이나 라디오 등 소리를 매개로 내지뿐 아니라 식민지로 발신하였고, 식민지의 대중은 수용자가 되어 일본문화를 받아들였으며 이는 제국의 침탈을 은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따라서 일본이 수행한 음악정책, 특히 대중을 상대로 한 음악의 통제 및 장려 정책에 대한 연구는 당시 일본의 국책 선전과 선동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할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의 음악의 통제와 이용 과정, 특히 조선과 일본 본토에서의 국민가의 제정과 보급 활동에 관한 것이고 이를 통하여 조선의 식민지적 특수성에 대해서 조명하고자 한다.

2. 일본의 국민가의 제정과 보급

일본에서는 만주사변의 발발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쳐 정부의 통제가 시작되었다. 음악 분야에서도 그 영향 하에 1934년 일본방송협회 개조에 따른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국가의 관리가 강화되었고, 같은 해 8월 출판법 개정에 의해 음반검열이 제도화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²⁾ 하지만 음반검열이 제도화되기 10년 전인 1924년부터 내무성이 음반검열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1932년 재논의를 거쳐 1934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³⁾

『戦争と軍隊』近代日本文化論 10 岩波書店, 戸ノ下達也(2008) 「量産された「國民歌」」 『音楽を動員せよ—統制と娯樂の十五年戦争』青弓社 등이 있고, 한국측 연구로서 노동은(1989) 「일제하 음악사회의 성격」 『낭만음악』 통권4호 낭만음악사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전시 하 음악계의 상황을 논하면서 그 일부로서 국민가에 대해서 언급한 것, 악곡모집을 미디어 이벤트로서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 현상공모를 모집 주체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논한 연구, 일제하 음악사회와 음악인들의 성격을 파악하면서 국민가를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연구에서는 국민가를 중심으로 일본과 조선의 음악정책을 비교 고찰한 것은 없고, 특히 조선의 악곡공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도 없다. 당시 조선의 음악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내지의 정책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관계에 관한 정확한 양상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2) 음악검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지선(2009) 중일전쟁 전후 일본의 음반검열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4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참조.

음반검열은 중일전쟁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9월 11일 고노에(近衛) 내각은 국민을 사상적으로 통합시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관제운동인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추진하였다. ‘거국일치’, ‘진충보국’, ‘견인지구’의 세 개의 슬로건을 걸고,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멸사봉공의 정신을 강조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고, 이를 기점으로 음악계에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음반검열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무성은 1937년 8월 간담회를 열어, 음반의 시국 대처방책으로서 검열을 통해 시국에 부응하는 건전한 고질 실질 강건한 음반을 만들게 한다는 자세를 명확히 했고, 이와 더불어 판매 정책에 있어서도 판매 우선주의를 시국 극복을 위한 봉공주의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⁴⁾ 내무성에 의한 음반검열은 대중가요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정조의 함양을 위해 대중가요를 정화시키고 결국에는 시국에 맞는 음악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내무성은 전시 하에서 국민의 시국 정신의 고취를 위해서 노래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특히 대중가요의 영향력을 충분히 인식하여 음반검열이라는 대중가요의 정화 작업을 시국적 차원에서 단행해 나간 것이다. 음반검열을 통한 가요의 정화 작업은 중일전쟁 이후 국가에 의한 본격적인 음악통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당시에는 가요정화를 위한 음반검열이라는 ‘통제정책’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방침으로써 시국에 적합한 건전한 노래의 ‘보급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국민의 교화, 동원을 목적으로 한 ‘국민가’를 제작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가라는 명칭은 중일전쟁을 계기로 국민음악 수립이라는 맥락 속에서 사회상황에 따른 대중가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음반검열을 담당했던 오가와 치카고로(小川近五郎)는 건전한 음악을 보급하기 위

3) 山内文登(2009)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 - 제국질서와 미시정치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pp.159-160.

4) 이러한 방침은 바로 음반 제작에 반영되었는데, 당시 유행가 음반의 신보 발매수는 1938년 4월까지 저조함을 보이는 반면에 시국 관련 음반은 1937년 8월부터 점차 증가하여 다음해 1월까지 높은 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内務省警保局圖書課(1937-1938) 『支那事變並ニ時局關係レコード(一)~(十)』, 『出版警察資料』24-30號.

해서는 검열을 통한 음악의 정화운동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공적 유행가라 할 수 있는 국민가의 제정을 주장하였고⁵⁾, 이후 신체제운동이 전개됨에 따라서 국민가 보급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어갔다⁶⁾.

국가 목적에 따라 국민을 교화, 동원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요인 국민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필요했는데, 그 수단으로서 활용된 것이 국민가의 현상모집이었다.

전시체제 중 일본의 국민가 현상모집은 1932년 2월 22일 상해 근처에서 3명의 군인이 폭사(爆死)한 사건을 제재로 삼아 시작되었다. 각 신문은 폭탄삼용사의 보도를 미담으로 전했고, 이 사건은 2월 28일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와 마이니치신문사(毎日新聞社)⁷⁾가 주최한 현상모집에 의해 <육탄삼용사의 노래>와 <폭탄삼용사의 노래>라는 곡으로 만들어졌다. 이 곡들은 신문사의 전쟁협력 활동의 성원가로서 이후에도 신문사의 시국관련 보도와 음반회사의 영업정책이 맞물려 많은 국민가를 양산해 냈다.

1937년 9월 정보부는 거국일치의 결속을 다지는 수단으로서 국민가의 현상모집을 발표했는데, 신문사와 잡지사에 의한 가요의 현상모집은 종종 행해져 왔지만⁸⁾ 정보부에서 가요를 모집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5) 小川近五郎(1941) 『流行歌と世相：事變下に於ける歌謡の使命』 日本警察新聞社 pp.167-170

6) 吉本明光(1941) 「國民歌を環って」 『音樂之友』12月號, 音樂之友社 pp.77-81.

7) 『마이니치신문』은 1942년까지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과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으로 나뉘었으나 1943년 1월 1일부터 명칭이 마이니치신문으로 통일되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1943년 이전도 마이니치신문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8) 津金澤聰廣(1999) 『メディア・イベントとしての軍歌・軍國歌謡』, 『戦争と軍隊』近代日本文化論 10 岩波書店 p.75.

으로 <노영의 노래>를 선정했다. <진군의 노래>는 황군위문 애국음악회에서 발표되었고, 동경방송국에서 중계방송되었으며, 음반으로 발매되어 전국 각지에 퍼져나갔다. 또한 <노영의 노래>는 당선작보다 오히려 대중적인 지지를 얻어 <애국행진곡> 및 제2의 국가로 불리던 <바다로 가면>과 더불어 전시하의 대표적인 국민가로서 보급되었다. 마이니치신문사 외에 각 신문사에서 적극적으로 악곡모집에 나섰다. 아사히신문사에서는 1937년 11월 <황군대첩의 노래>를 시작으로 <황군장사에 감사의 노래>, <어머니를 기리는 노래>, <홍야행진곡> 등을 공모에 의해서 발표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처음으로 시행된 악곡모집에서는 1941년 12월 마이니치신문사 주최의 ‘홍국결전의 노래’라는 주제로 <대동아결전의 노래>가 당선되었고, 1942년에는 ‘칠양제패(七洋制覇)의 노래’로서 <바다로 나가는 일본>이 선정되었다. 또한 같은 해 아사히신문사의 ‘근로보국대가’로 선정된 <즐거운 봉사>, 1943년 요미우리호치(讀賣報知)신문사의 악곡공모로 제정된 <학도공의 진군>과 아사히신문사의 ‘국민정용정신가’의 모집으로 선정된 <승리의 생산> 등이 있다. 이들은 미디어가 정보국, 문부성, 육군성, 후생성

<예2> 육군성 현상모집 당선작
 <애마진군가> : 『주보』
 1938년 12월 28일호

등의 국가기관의 후원과 협찬을 등에 업고 악곡제정과 보급에 의한 국민운동을 담당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신문사 외에 출판사도 적극적으로 악곡모집에 관여하였다. 1939년 7월 고단사(講談社)에서 공모한 <출정병사를 보내는 노래>에는 약 13만 명의 응모자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슈후노토모사(主婦之友社)에서는 1938년에 <부인애국의 노래>와 <소년소녀 애국의 노래>를 시작으로, <야스쿠니신사의 노래>, <일본

11) 戸ノ下達也(2008) 『音楽を動員せよ—統制と娯樂の十五年戦争』 青弓社 pp.156-157.

의 어머니의 노래> 등 매년 악곡을 모집하고 이를 잡지 『슈후노도모』(主婦之友)에 게재함으로써 선진과 보급 활동에 힘을 쏟았다.

정부측에서는 전술한 정보부를 시작으로 여러 기관에서 악곡모집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육군성과 대정익찬회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육군성은 1938년 마정국과 함께 군마의 훈공을 찬양하기 위해 <애마진군가>를 공모하여 이듬 해 1월에 국민가로 선정하였고 음반으로도 발매하였다. 현상공모 외에 육군성은 콜롬비아레코드에서 1940년에 발매한 <불타는 대공>, 1941년의 <국민활병가>, 1942년의 <대동아전쟁육군의 노래>등을 국민가로 선정했다.¹²⁾

대정익찬회에서는 1940년 12월에 악곡을 현상모집하고 다음 해에 <대정익찬의 노래>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힘>, <전진하라 일억 불당이 다> 등을 선정하였다. 대정익찬회는 1940년 10월 국민적 정치력의 결집에 의해 강력한 정치체제를 확립할 목적으로 모든 정당을 일원화시킨 상의하달의 조직으로, 문화부나 선진부에 의한 건진 오락의 장려,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 익친문화운동을 전개해갔고, 음악과의 관련 활동으로는 국민가의 제정과 국민개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어나가는 역할을 했다.

정보국에서는 결전의 날을 맞이하여 전 국민의 필승 투혼을 일으킬만한 국민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필승가>의 모집을 실시했다. 1944년 12월에 가사가 정해진 <필승가>는 작곡을 공모하여 이듬해 입선작 악보를 각 신문에 게재하였고, 연주회 발표, 라디오 방송 등 대대적인 보급 활동을 전개해 갔다.¹³⁾ 이 곡은 정보국이 <애국행진곡>(1937년)에 이어 작사, 작곡의 공모, 심사, 보급을 위한 연주회 후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한 관제 국민가로, ‘국민애국가’로 불리기도 했다.

패전을 목전에 둔 1945년 8월 5일에는 국민의 전의를 고조시키기 위해 일본 음악문화협회, 일본방송협회, 아사히·마이니치·요미우리신문사 및 각 지방 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정보국이 후원하여, 8월 15일 마감으로 ‘국민의 군가’라고 불릴만한 가곡의 작사, 작곡을 공모했다.¹⁴⁾ 그러나 모집 마감일에

12) 倉田喜弘(2001) 『「はやり歌」の考古学: 開國から戦後復興まで』文藝春秋 pp.213-214.

13) 「鬪魂燃ゆる 必勝歌」 『朝日新聞』1944년 12월 22일자, 必勝歌, 作曲入選決る 『朝日新聞』1945년 2월 6일자, 「必勝歌」發表大演奏 『朝日新聞』1945년 2월 7일자.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각 신문사는 악곡 발표 취소의 기사를 내보냈고¹⁵⁾ 전시기의 현상모집은 이로써 끝이 나게 되었다.

현상모집에 의해 선정된 주요한 국민가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국민가의 현상모집은 정부기관, 신문사, 출판사 등의 미디어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실시되었고, 전쟁에 임하는 후방의 정신과 자세를 다양한 주제로 삼았으며, 선정된 악곡은 음반, 라디오 방송, 음악회, 각 가정에 배포되는 『주보』(週報), 잡지,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선전, 보급되었다.

전시체제 하에서는 모든 물자가 전쟁에 동원되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문화도 ‘성전 완수’에 동원되어야 했고 성전 완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문화가 아니라는 인식¹⁶⁾이 팽배했다. 이렇듯 전시 하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군수품’¹⁷⁾이었고, 국민가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음악은 훌륭한 ‘전쟁의 병기’로서¹⁸⁾, 국민의 거국일치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었다고 하겠다.

<표1> 일본의 현상모집에 의해 선정된 주요 국민가¹⁹⁾

연도	주 최	곡 명
1937	毎日新聞 정보부 朝日新聞 외	진군의 노래, 노영의 노래 애국행진곡 황군대첩의 노래
1938	毎日新聞 主婦之友 朝日新聞	히노마루행진곡, 대륙행진곡 부인애국의 노래, 소년소녀애국의 노래 황군장사에 감사의 노래
1939	육군성 毎日新聞 朝日新聞	애마진군가 태평양행진곡, 세계일주 대비행의 노래 어머니를 기리는 노래

14) 「國民の軍歌 募集 『朝日新聞』 1945년 8월 5일자.

15) 「“國民の軍歌” 發表取やめ, 『朝日新聞』 1945년 9월 9일자.

16) 吉本明光(1942) 「國民皆唱と國民音樂」 『音樂之友』 6월호 音樂之友社 p.67.

17) 「一萬人合唱」 『讀賣新聞』 1941년 5월 8일자.

18) 「音樂は立派な兵器だ」 『毎日新聞』 1943년 3월 12일 석간.

19) 표는 본 연구자가 조사한 것 외에 倉田喜弘(1992) 『日本レコード文化史』 東京書籍 p.204, 津金澤聰廣(1999) 위의 글 p.74, 戸ノ下達也(2008) 위의 책 pp.151-169를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정부와 기관, 군, 각 신문사와 출판사에서 실시한 것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외에 음악관련단체 등 다른 기관의 현상공모도 있으므로 완전한 형태가 아님을 밝혀둔다.

	講談社 讀賣新聞 일본방송협회 외 애국부인회	출정병사를 보내는 노래 하늘의 용사를 기리는 노래 기원2600년 봉축 국민가 총후 가정강화의 노래
1940	朝日新聞 毎日新聞 主婦之友	방공의 노래, 흥아행진곡, 항공일본의 노래 국민진군가 야스쿠니신사의 노래
1941	대정익찬회 朝日新聞 讀賣新聞 毎日新聞	대정익찬의 노래 국민학교의 노래 해국(海國) 혼의 노래, 국민충의의 노래 대동아결전의 노래
1942	讀賣新聞 毎日新聞 외 朝日新聞 主婦之友 小國民文化協會	특별공격대를 기리는 노래 바다로 나가는 일본 즐거운 봉사, 약진철도가 일본의 어머니의 노래 소국민진군가
1943	朝日新聞 일본방송협회 讀賣報知 대정익찬회 후생성 소국민문화협회	증산온도, 앓쓰섬혈전용사 현창국민가, 승리의 생산 미영격멸행진곡 학도공의 진군 근로보국대의 노래 여성진군가 애국자장가(愛國子守唄), 소국민가
1944	정보국 대정익찬회 외	필승가 일억특공대의 노래

3. 조선의 국민정화운동과 국민가의 보급

조선에서는 일본보다 1년 이상 이른 1933년 5월에 음반 검열이 시작되었다.²⁰⁾ 사회주의나 민족주의에 입각해 기존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치안방해’와 외설적인 표현을 담은 ‘풍속괴란’이 검열의 기준이 되었다. 음반검열의 시작부터 1942년까지의 시기에 금지된 한국어 음반은 치안방해가 풍속괴란보다 2배 가까이 많은데 비해서 일본의 경우는 반대로 풍속괴란이 치안방해(안

20) 조선의 음반 검열에 관해서는 이준희(2007) 일제시대 음반검열 연구 『한국문화』39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참조.

녕문란)보다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²¹⁾ 이렇듯 치안에 중점을 둔 조선의 음반검열에는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음반검열은 조선총독부 도서과에서 담당했는데 특히 대중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요가 중점 대상이 되었다. 총독부 도서과에 의한 음반 검열이 진행되는 가운데, 음악에 대한 기본 방침은 조선문예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선문예회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주도로 1937년 5월 1일에 발족한 관민협동단체이다.²²⁾ 총독정책의 하나인 사회교화를 목적으로 각 예술 분야를 교화 선도하고자 설립되었다. 조선문예회는 첫 사업으로 감화력이 큰 유행가를 정화하기로 하고 일본인을 1부로, 조선인을 2부로 하여 시세(時勢)에 적합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방송, 음반 취입 등을 통해 널리 퍼뜨리고자 하였다.²³⁾

조선문예회의 발회식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도미나가 분이치(富永文一)는 “레코오드, 기타 각종 비속한 가곡이 가두에 가득하여 사회풍교상 악영향을 미치는 바 많으므로 이것을 선도하여 사회풍교의 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인데, 장치는 연주, 영화, 기타 문예와 연예의 각 방면에 진출을 하여 실제적으로 교화 선도운동을 일으킬 터이다²⁴⁾”라는 담화문을 통하여, 가요정화운동을 중심으로 장차 전 분야의 조직체를 결성하려는 계획 하에 조선문예회가 설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가요정화운동은 조선문예회의 첫 사업으로서 시행되었지만, 조선의 가요를 정화하고 일본 체제화를 지향하려는 정책은 이미 1910년대부터 조선총독부의 국가적인 정책 중의 하나로 시작되고 있었다. 1929년 2월 22일에는 속요 개선을 목적으로 조선시가협회가 창립되었는데, 여기에는 이광수, 주요한, 이은상, 김억, 변영로, 양주동, 김영환, 김형준, 정순철, 안기영 등 조선의 문예계와 음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²⁵⁾ 조선시가협회는

21) 이지선(2009) 앞의 글 p.354.

22) 「官民協同朝鮮文藝會 學務局韓旋으로 五月一日에 發會式 『매일신보』1937년 4월 9일자.

23) “朝鮮文藝會”生る 富永學務局長等の音頭で 先づ流行歌淨化に. 『京城日報』1937년 4월 3일자.

24) 임종국(1988)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p78.

‘퇴폐적 악종(惡種)가요를 배격하고 진취적인 노래를 부르자’는 슬로건을 걸고 건전한 조선의 가요를 만들고자 했는데, 이것은 이후 조선문예회의 가요정화운동으로 그대로 답습된다. 조선문예회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 내용뿐 아니라 중심인물에 조선시가협회의 동인이었던 김억, 김영환, 양주동 등이 포함된 것으로도 이는 확인된다.

조선문예회를 중심으로 시행된 가요정화운동은 일본과 조선의 문예가들과 음악인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가요를 만들고 이를 보급하고자 하였다. 신작가요는 조선문예회의 주요 간부인 현제명, 홍난파, 이면상, 이종태, 함화진, 하규일 등의 음악인들이 작곡하고, 최남선, 이광수, 김억, 박영철, 방응모 등이 작사에 참여했으며, 일본인으로는 경성고등여학교와 경성사범학교의 음악교사였던 오바 유노스케(大場勇之助)와 요시자와 미노루(吉澤實), 안도 요시아키(安藤芳亮) 등이 작곡을, 작가인 우에다 다다오(上田忠男), 다나카 하쓰오(田中初夫), 데라모토 기이치(寺本喜一) 등이 작사를 담당했다.

1937년 7월 11일에는 제1회 조선문예회 신작가요 발표회가 열렸는데, 이때 조선총독부 김대우 사회교육과장은 “문예 전반에 걸친 활동은 시기상조이므로, 우선 건전한 가요운동을 통하여 정신생활을 윤택케 하고 국민정신의 작흥, 국채관념명징에 일조가 되게 하려고 한다”²⁶⁾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음악회에서는 최남선 작사의 <내일>, <동산>, <가는 비>, <서울> 등 6곡의 조선어 가요와 <조선청년가>, <상쾌한 조선> 등의 일본어 가요 9곡이 불렸다.

같은 해 9월 15일에는 시국인식을 철저히 하고 사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시국가요 발표회를 개최했다. 여기서는 데라모토 기이치 작사, 안도 요시아키 작곡의 <신국일본>(神國日本) 등 16곡의 일본어 가요와 최남선 작사, 홍난파 작곡의 <정의의 개가> 등 조선어 가요 5곡이 연주되었다. 이 노래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9월 30일에는 매일신문사 주최와 조선문예회 후원으로 부민관에서 총후반도의 애국가요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는 조선어 가곡 7곡²⁷⁾과

25) 조선 시가 협회, 속요 개선이 목적 『중외일보』1929년 2월 24일자, 사설, 조선시가협회의 창립 『중외일보』1929년 2월 26일자

26) 「朝鮮文藝會 新作歌謠 發表 『매일신보』1937년 7월 12일자.

27) 임종국 『친일문학론』p.80과 노동은(1989) 일제하 음악사회의 성격 『낭만음악』통권 4호, 낭만음악사 p.38에는 5편의 조선어 가요가 불렸다고 하지만, 당시 연주된 조선어 노래는 <중국어간호부의 노래>, <김소좌를 생각함>, <정의의 개가>, <총후의남>, <방호단

일본어 가곡 17곡 등 24곡의 가요가 발표되었다.

7월 11일과 9월 30일에 열린 신작발표회에서 연주된 악곡²⁸⁾의 제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조선문예회 신작가요 목록

1937. 7. 11 (15곡)	조선어 (6곡)	내일, 동산, 가는 비, 서울, 복사꽃, 붉은 꽃송이
	일본어 (9곡)	조선청년가(朝鮮靑年歌), 상쾌한 조선(爽やかな朝鮮), 한강고우타(漢江小唄), 그리운 조선(懐かしき朝鮮), 우리들은 소년(僕らは少年), 반딧불(螢), 오래된 조개껍질(古き貝殻), 결혼의 시(結婚の詩), 근로가(勤勞歌)
1937. 9. 30. (24곡)	조선어 (7곡)	총후의남, 정의의 사여, 중국간호부의 노래, 정의의 개가, 장성의 파수, 김소좌를 생각함, 방호단가
	일본어 (17곡)	황사의 노래(皇師の歌), 일어나라 방호단(奮へ防護團), 진군하라 황군(進め皇軍), 정도를 진송하는 노래(征途を送る歌), 천인침의 노래(千人針の歌), 보정낙성의 노래(保定落城の歌), 전장의 가을(戦場の秋), 공군의 노래(空軍の歌), 전송(お見送り), 일본의 어린이다(日本の子供だ), 신국일본(神國日本), 뉴스(ニュース), 중국간호부의 노래(從軍看護婦の歌), 숙소(宿舎), 총후(銃後), 위문대(慰問袋), 적전상륙(敵前上陸)

표에서 보듯이 7월 11일의 연주회에는 조선어 가요(6곡)와 일본어 가요(9곡)의 비율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지만 9월 30일의 연주회에서는 조선어 가요(7곡)에 비해 일본어 가요(17곡)가 월등히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월의 연주회에서는 시국가요 외에도 서정적인 내용의 작품이 눈에 띈지만²⁹⁾ 9월의

가>, <정의의 사여>, <장성의 파수>의 7곡으로 확인된다. 박찬호(2009)『한국가요사1』 미지북스 pp.585-586.

28) 노동은(2003) 「일제하 음악인들의 친일논리와 단체」 『음악과 민족』25 민족음악학회 pp.73-74. 이 논문에는 ‘애국가요 발표회’가 1937년 10월 4일 개최되었다고 하지만 9월 30일의 오류로 보인다.

29) 제1회 신작가요발표회에서 발표된 향토적 색채를 띤 4편의 최남선의 작품들도 <조선청년가>와 조응하는 것으로, 순수한 서정적인 작품만으로는 볼 수 없다. 특히 최남선의 작품과 조응하는 <조선청년가> 가사 속의 시적 수사들은 그 무렵 조선총독부 시정의

연주회에서 불린 곡은 24곡의 제목에서 보듯이 모두 시국적 내용을 담은 노래이다. 이는 중일전쟁의 발발로 전시색이 점차 짙어짐에 따라서 국민에 대한 시국적인 사상 교화가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조선문예회의 5월 설립 당시의 취지문에서 ‘조선의 문화 수준을 차제로 고도에 추진시켜 2천만 동포의 사회생활의 원만과 풍운을 기하려고 한다’³⁰⁾고 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으로 드러내는 방침이었을 뿐이었다. 조선문예회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의 문화 건설이나 국민의 풍운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시국가요를 보급함으로써 조선을 일본 정신과 그 정서로 교화시켜나가는 황민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조선문예회가 주도한 가요정화운동과 시국가요 발표 외에, 신문사와 조선총독부, 국민총력조선연맹³¹⁾은 시국가요를 현상공모하고 그 보급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매일신문사는 1938년 7월 경영독립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장편소설, 영화소설, 국민가요의 세 부문에 걸쳐 문예작품을 현상모집했다. 국민가요의 분야는 ‘전시체제 하에 조선인으로서 가져야 할 국민적 각오를 함양시키고 또 철저히 하기 위해 애국적 정열에 불타는 국민가요를 모집한다’는 취지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조선뿐 아니라 만주국, 지나(支那) 등 국외 각지에서도 참가하여 총 900여 명이 응모하였고 당선작 없이 선외가작으로 <반도청년 애국행진곡>과 <애국행진>이 선정되었다.³²⁾

이러한 시국적 가요는 연주회나 음반뿐 아니라 라디오로도 방송되었다.

근본방침인 일시동인(一視同仁), 내선일체(內鮮一體)나 중일전쟁에 대한 문학적 예찬을 하고 있다. 구인모(2008) 최남선의 ‘시국가요’와 식민지의 정치의 미학화, 『국제어문』 42, 국제어문학회 pp.288-289.

- 30) 「健全한 文藝의 振興을 爲한 『朝鮮文藝會』創立」 『매일신보』 1937년 5월 5일자.
 31) 1940년부터 1945년에 걸쳐 유례없는 거대한 조직과 강력한 실천력으로 일본의 장기전 수행에 수반하는 총후 활동의 제반문제를 처리해 나간 단체이다. 1940년 12월 이후 모든 문화활동에도 신체제를 갖추고 활동 분야에 따라 민중을 지도하고자 국민총력조선연맹 사상부를 이분함으로써 문화부를 설치했으며, 연락기관으로 문화협회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 연극협회, 음악협회 등의 모든 형태별 조직체를 두었다. 조선연맹 문화부의 기본 방향은 국책협력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문화를 통하여 내선일체에 더욱 심도를 가하고자 하였다.
 32) 本社 經營獨立記念事業 文藝作品懸賞募集：長篇小說 映畫小說 國民歌謠 『매일신보』 1938년 7월 31일자, 「國民歌謠 選外佳作 發表」 『매일신보』 1939년 1월 26일자.

1940년 6월 경성중앙방송국 제2방송부에서는 일본 동경중앙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 ‘국민가요’를 모방하여 ‘국민신가(가칭)’를 제작, 방송하는 준비에

예3) 『매일신보』 당선작 <우리는 제국군인>과 <어머니의 기원>33)

The image shows a page from a newspaper with two musical scores. The top score is titled "우리는 帝國軍人" (We are Imperial Soldiers) and the bottom score is titled "어머니의 祈願" (Mother's Prayer). Both scores include musical notation and Korean lyrics. The page also contains some text in the center and bottom, including the names of the composers and publishers.

돌입했다. 국민신가는 조선의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장기전 하에 조선인의 정조함양과 국민적 자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종래의 저속하다고 비난받아오던 조선가요를 일축하고 시대색에 적합한 작사와 작곡을 우수한 작사, 작곡가에게 의뢰하여 정신총동원운동의 일단이 되게 하는 노래를 널리 보급하는 의도였다.34)

매일신문사의 악곡공모는 계속되어 1943년 2월 26일에는 ‘반도 개병의 노래’를 모집하였다. 상금 1천5백 원을 건 이 공모에서는 <우리는 제국군인>과 <어머니의 기원>을 노래 제목으로 하여 평이한 언·한문 형식의 가사가 기준이었다. 매일신문사의 현상모집은 계정식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의 초석이 될 아들을 위하여 청년은 국가를 위해 한 생명을 바칠 결의를 드리는 노래로서, 1944년부터 실시할 징병제를 앞두고 반도개병의 노래를 널리 모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35) 1943년 3월 20일에 모집을 마

감한 후, <우리는 제국군인>과 <어머니의 기원>의 두 작품이 당선작으로 뽑혔다.36)

33) 「唱和하자 2千5百萬의 半島皆兵의 노래를」 『매일신보』 1943년 8월 4일자.
 34) 「低俗한 歌謠 清算하고 國民新歌(假稱)를 放送」 『매일신보』 1940년 6월 22일자.
 35) 半島 皆兵의 노래 懸賞募集 『매일신보』 1943년 2월 26일자, 皆兵의 노래 募集 『매일신보』 1943년 2월 27일자.

<우리는 제국군인>의 가사에는 제국의 군인이 되는 징병제 실시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 있다는 호평을 받았고, 전문 작곡가에 의해서 선율이 붙여져 음반으로도 발매되었다.³⁷⁾ 또한 징병제 실시 감사 결의 앙양 주간예 ‘징병제 감사 매일신문사 4대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 ‘반도개병의 노래’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³⁸⁾, <예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일신보』에 두 곡의 악보와 가사를 게재하여 그 보급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노래들은 일본 가요의 전형적인 음계인 요나누키(ヨナ抜き) 장음계와 요나누키단음계³⁹⁾로 작곡된 곡으로, 일본 제국 찬양의 가사와 더불어 조선 민족의 정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곡이었다.

8월 3일 경성 부민관에서 열린 ‘반도개병 노래 발표회’는 모두 3부로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국민의례로서 궁성요배와 황국신민의 서사 제송을 한 후, 2편의 현상모집 당선작 <우리는 제국군인>과 <어머니의 기원>에 대한 수상식을 거행하였고, 제2부에서는 <대동아 결전의 노래>과 <바다로 가면>, <우리는 제국군인>의 노래를 불렀다. 제3부에서는 경성 후생살내악단의 연주가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참석자 전원이 일본의 국민가인 <대동아에 아침이 오다>, <남진남아의 노래>, <바다의 진군>, <대일본의 노래>를 연이어 불렀다.⁴⁰⁾

36) 「半島皆兵의 노래」 『매일신보』 1943년 5월 1일자.

37) 「徵兵朝鮮을 謳歌한 音盤에 不滅할 感激」 『매일신보』 1943년 7월 16일자.

38) 「徵兵제에 感謝 本社 四大記念行事」 『매일신보』 1943년 7월 28, 29일자.

39) 하나의 음계를 이루는 8개의 음을 일본어 숫자를 셀 때 쓰는 ‘히(1)-후(2)-미(3)-요(4)-이(5)-무(6)-나(7)-야(8)’로 읽기도 하는데, 이중 4번째 ‘요’ 와 7번째 ‘나’가 빠진 음계를 요나누키음계라고 한다. 따라서 요나누키 장음계는 도-레-미-솔-라-도이고, 요나누키 단음계는 라-시-도-미-파-라로 구성된다.

40) 「2千5百萬의 大合唱」 『매일신보』 1943년 8월 3일자.

<예4> 국민총력조선연맹 현상모집
당선작 <일억의 결의>(41)



한편,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전신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주최에 의한 가요의 현상모집은 1939년 3월에 시작되었다. 이 연맹은 행진 가요를 모집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활발한 원기를 북돋을 수 있는 의미와 신동아 질서의 건설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였다.⁴²⁾

이후 국민총력조선연맹은 1941년부터 소설(국문(일문), 문화익찬소설), 가요, 논문(대동아전쟁의 주제)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했다. 1942년 1월 31일에는 전쟁 하에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킬만한 국민가

요를 현상모집했는데, 작사는 일본어이고 작곡은 국민 개창에 적합한 것을 기준조건으로 삼아 2월 15일까지 622통의 응모를 받았고, 1등으로 <일억의 결의>(一億の決意), 가작으로 <대동아결전의 뜻>(大東亜決戦の義)과 <충후반도의 노래>(銃後半島の歌)가 당선되었다. 이후 <일억의 결의>에 대한 작곡모집을 하고 당선작이 3월 23일 『매일신보』에 게재되었다.⁴³⁾

1943년 5월에는 미영을 철저히 격멸하고 미영음악을 거리와 가정에서 완전히 구축하여 전쟁의식을 양양시키고자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미영격멸의 가요’를 현상모집하였다. 가사는 일본어로 제한하였고, 민요 ‘○○節’과 같이 ‘미귀영귀 섬멸절(米鬼英鬼殲滅節)’ 등으로 하여 일반 민간에게 유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철저히 적을 격멸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것을 요강으로 제시하였다.⁴⁴⁾

41) 「國民總力朝鮮聯盟서 募集한 作曲 當選 發表」 『매일신보』 1942년 3월 23일자.

42) 「國民精神聯盟 - 聯盟進行歌와 國旗圖案 募集」 『매일신보』 1939년 3월 10일자.

43) 「國民總力朝鮮聯盟에서 國民歌謠 懸賞募集」 『매일신보』 1942년 1월 31일자, 「聯盟文化部 募集 國民歌 當選者 發表」 『매일신보』 1942년 2월 23일자, 「國民總力朝鮮聯盟서 募集한 作曲 當選 發表」 『매일신보』 1943년 3월 23일자.

44) 「米英擊滅의 歌謠 - 聯盟에서 懸賞募集」 『매일신보』 1943년 5월 14일자.

조선총독부 정보과에서도 악곡의 현상모집을 실시했다. 1942년 9월 징병제도의 취지를 선전하고 반도청년에게 씩씩한 기풍을 넣어준다는 명목 하에 <반도청년의 노래>의 가사와 작곡을 모집했는데, 작곡에는 300여점이 응모에 참가했고 1등이 없는 2등작이 선정되었다.⁴⁵⁾ 이 노래는 이후 대규모의 음악교화운동인 국민개창운동의 선정곡으로도 채택되어⁴⁶⁾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갔다.

1945년 8월 5일에는 일본 내지에서의 현상모집과 동시에 조선에서도 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정보국이 후원하여 ‘국민의 군가’를 공모하였다. ‘본토 결전을 목전에 두고 총력을 다하여 부를 노래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매일신보』에 게재하였는데 열흘 후 패전함으로써 악곡은 선정되지 못한 채 끝이 났다.⁴⁷⁾

조선에서 현상모집에 의해 선정된 가요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조선의 현상모집에 의해 선정된 가요

연도	주 최	주제 및 선정된 <악곡명>	가사의 언어
1939	매일신문사	시국에 적합한 국민가요 <반도청년 애국행진곡> <애국행진>	언·한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신동아 건설을 위한 행진가요	(미확인)
1942	국민총력조선연맹	대동아전쟁 <일억의 결의> <대동아 결전의 뜻> <총후반도의 노래>	일본어
	조선총독부	징병제 기념 <반도청년의 노래>	일본어
1943	매일신문사	반도개병의 노래 <우리는 제국군인> <어머니의 기원>	언·한문
	국민총력조선연맹	미영격멸의 가요	일본어
1945	매일신문사	결전의 총력을 위한 군가 (패전으로 미선정)	(미선정)

45) 「半島靑年の 노래」 『매일신보』 1942년 10월 16일자.

46) 國民皆唱運動 展開 - 國民士氣 昂揚, 健全情操를 育成 『매일신보』 1943년 4월 15일자.

47) 「國民의 軍歌 현상모집」 『매일신보』 1945년 8월 5일자.

표에서 보듯이 조선에서의 현상모집은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총독부, 매일신문사가 주축이 되었고, 주제는 신동아 건설, 태평양전쟁, 징병제 찬양, 미영격멸 등이었다. 가사는 매일신문사에서는 한문과 한글이 혼합된 가사를 제시했지만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총독부에서는 일본어로 한정시킴으로써 내선융화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신문사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현상모집에 의해서 보급된 조선의 국민가 외에, 일본의 공모에서 선정된 곡은 바로 조선에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내각정보부 현상모집 당선작 <애국행진곡>(1937. 11)은 조선에서 음악회뿐 아니라 강연회나 행사에서 국민의례의 일부로도 빈번하게 불렀고⁴⁸⁾, 잡지사 『슈후노토모』의 공모 당선작 <부인애국의 노래>(1938. 6)는 일본에서의 발표 다음 달인 7월에 조선에서 발표연주회를 가졌으며⁴⁹⁾, 육군성 공모에 당선된 <애마진군가>(1938. 12)는 조선에서 발표연주회와 전 사범학교에 악보를 배포하여⁵⁰⁾ 그 보급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마이니치신문사 공모 당선작 <노영의 노래>(1937. 7)와 <국민진군가>(1940. 7), <대동아결전의 노래>(1941. 12)는 독창회, 음악무용발표회, 음악제전 등 각종 음악회에서 연주되었고⁵¹⁾, 마이니치신문사가 공모하고 해군성이 선정한 <태평양행진곡>(1939. 2)과 아사히신문 공모 당선작 <홍아행진곡>(1940. 6), 전술한 <애마진군가>은 조선음악협회가 주최하고 매일신문사가 후원한 음악경연회의 애국가 과제곡으로 채택되기도 했다⁵²⁾.

이와 같은 일본에서 현상모집에 의해서 선정된 악곡은 조선에서 채택된 악곡과 더불어 각종 음악회, 경연대회, 행사 등 군중이 모이는 다양한 장소에서 부르게 함으로써 일본과 조선의 일체화를 꾀하였다.

-
- 48) 「愛國行進曲을 合唱中에 卒倒」 『매일신보』 1938년 7월 16일자, 音樂朝鮮의 새 氣焰, 『매일신보』 1938년 12월 8일자, 肅의 勇士에 絢爛한 膳物 開拓民慰問演奏班 『매일신보』 1942년 8월 16일자, 東京音樂學校 職員演奏會 『매일신보』 1942년 8월 21일자.
 49) 「『부인애국가』의 발표연주회」 『매일신보』 1937년 7월 10일자.
 50) 「愛馬進軍歌」 『매일신보』 1939년 1월 28일자.
 51) 音樂朝鮮의 새 氣焰 『매일신보』 1938년 12월 8일자, 本社 學藝部 後援의 李仁範獨唱會 曲目: 豫想되는 當夜の 盛況 『매일신보』 1940년 11월 25일자, 오케 音樂舞踊 發表會 『매일신보』 1941년 2월 19일자, 音樂家協會 主催 本社 後援 <空前的 音樂大祭典>, 『매일신보』 1941년 6월 1일자, 「2千5百萬의 大合唱」 『매일신보』 1943년 8월 3일자.
 52) 「音協 主催 音樂競演會」 『매일신보』 1942년 9월 19일자.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기에 일본과 조선에서 행해진 음악의 통제 및 보급 정책에 대해서 국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일전쟁의 발발로 일본 정부 주도의 관제운동인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음악분야에서는 불건전한 가요를 정화하여 시국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음반검열이라는 ‘통제정책’이 시행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국민을 교화, 동원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요인 국민가의 ‘보급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국민가의 제정을 위한 여론 지지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국민가의 현상모집이었다. 현상모집은 내각정보부, 육군성, 마정국, 대정익찬회 등의 정부기관, 신문사, 출판사, 방송국 등의 미디어, 애국부인회, 소국민문화협회 등의 국민운동기관이 담당주체가 되었다. 전시기의 악곡모집은 ‘국책선전’과 ‘국민계몽’으로 그 목적이 확립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으로 나타난다.

선정된 국민가는 각종 음악회 연주나 행사 및 회합 등에서 국민의례로 사용되었으며, 음반 발매와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을 통하여 전파되었다. 또한 『주보』 및 각종 신문, 잡지에 선정곡의 악보를 게재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국민가를 확산시켜갔다.

조선에서의 음악정책은 식민지라는 특성상 일본보다 좀더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내지의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조선의 사정에 맞게 변형되거나 조선에서만 실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음반검열은 일본보다 오히려 1년 이상 먼저 시행되었다. 가요정화를 목적으로 실시된 음반검열에서 일본은 ‘풍속괴란’을 이유로 음반 발매가 금지된 경우가 많았지만 조선은 ‘치안방해’를 이유로 금지된 경우가 월등히 많아, 가요정화의 목적에도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투영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조선이 일본과 가장 구별되는 부분은 모든 음악정책에서 그 구심점에는 조선총독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음반검열은 조선총독부 도서관에서 담당했고, 음악 기본방침의 실천 주체였던 조선문예회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알선으로 조직된 친일단체였으며, 모든 문화활동의 주축이 되었던 국민총력조선

연맹은 조선총독부의 총독을 총재로 하여 조선총독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 관제단체였다.

조선에서의 현상모집은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총독부, 매일신문사가 주축이 되었는데, 주제는 신동아 건설, 태평양전쟁, 징병제 기념, 미영격멸 등이며, 특히 징병제 찬양, 제국군인, 반도청년 등을 강조함으로써 황민사상의 고취를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일본의 현상모집에 의한 국민가의 선정에 비해 조선에서는 현상모집이 그리 활발하게 시행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국민가를 그대로 조선에서 불리게 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선정된 국민가는 조선에서도 국민가요, 애국가, 애국가요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각종 음악회 및 행사 등에서 필수 가창곡이나 국민의례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 국민가의 보급 취지는 일본과 조선이 동일한 것이었지만, 조선에서는 이와 더불어 내선 일체라는 목적이 가미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전시체제 하에서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전쟁완수를 위한 군수품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소리를 매개로 한 큰 파급력으로 국민의 정신교화와 거국일치의 결속을 다지는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국민가로, 국민가의 장려정책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전시색이 더욱 짙어짐에 따라서 ‘국민개창운동’이라는 보다 강제적인 방침을 가지고 국민을 동원하는 형태로 발전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한다.

<參考文獻>

- 구인모(2008) 「최남선의 ‘시국가요’와 식민지의 정치의 미학화」, 『국제어문』42 국제어문학회 pp.273-305
- 노동은(1989) 「일제하 음악사회의 성격」 『낭만음악』 통권 4호, 낭만음악사 pp.4-79
- _____ (2003) 「일제하 음악인들의 친일논리와 단체」 『음악과 민족』25 민족음악학회 pp.51-131
- 박찬호(2009) 『한국가요사1』 미지북스
- 山内文登(2009)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 - 제국질서와 미시정치 -』 한

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이준희(2007) 일제시대 음반검열 연구, 『한국문화』 제3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pp.163-201
- 이지선(2009) 「중일전쟁 전후 일본의 음반검열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43 한국일본문화학회 pp.343-368
- 임중국(1988)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 『매일신보』 1937년 4월 9일, 5월 5일, 7월 10일, 7월 12일, 1938년 7월 16일, 7월 31일, 12월 8일, 1939년 1월 26일, 1월 28일, 3월 10일, 1940년 6월 22일, 11월 25일, 1941년 2월 19일, 6월 1일, 1942년 1월 31일, 2월 23일, 3월 23일, 8월 16일, 8월 21일, 9월 19일, 10월 16일, 1943년 2월 26일, 2월 27일, 4월 15일, 5월 1일, 5월 14일, 7월 28일, 7월 29일, 8월 3일, 8월 4일, 1945년 8월 5일자
- 『중외일보』 1929년 2월 24일, 2월 26일자
- 小川近五郎(1941) 『流行歌と世相：事變下に於ける歌謡の使命』日本警察新聞社
- 倉田喜弘(2001) 『「はやり歌」の考古学 - 開國から戦後復興まで』 文藝春秋
- _____ (1992) 『日本レコード文化史』東京書籍
- 津金澤聰廣(1999) 「メディア・イベントとしての軍歌・軍國歌謡」 『戦争と軍隊』近代日本文化論 10 岩波書店 pp.74-92
- 戸ノ下達也(2008) 『音楽を動員せよ—統制と娯樂の十五年戦争』 青弓社
- 内閣情報部編(1937) 「愛國行進曲成る」 『週報』62 内閣印刷局 p.41
- 内務省警保局圖書課(1937-1938) 「支那事变並ニ時局關係レコード(一)~(十)」 『出版警察資料』 24-30號
- 吉本明光(1941) 「國民歌を環って」 『音樂之友』12月 音樂之友社 pp.77-81
- _____ (1942) 「國民皆唱と國民音樂」 『音樂之友』6月 音樂之友社 pp.67-69
- 「“朝鮮文藝會”生る」 『京城日報』1937年 4月 3日
- 「音樂は立派な兵器だ」 『毎日新聞』1943年 3月 12日 夕刊
- 「鬨魂然ゆる「必勝歌」」 『朝日新聞』1944年 12月 22日
- 「「必勝歌」作曲入選決る」 『朝日新聞』1945年 2月 6日
- 「「必勝歌」發表大演奏」 『朝日新聞』1945年 2月 7日
- 「「國民の軍歌」募集」 『朝日新聞』1945年 8月 5日
- 「 " 國民の軍歌 " 發表取やめ」 『朝日新聞』1945年 9月 9日

접 수 일: 06월 30일

심사완료: 07월 23일

게재결정: 07월 27일

<要旨>

帝国日本と植民地朝鮮の音楽政策

— 国民歌の制定と展開様相を中心に —

本研究は日中戦争や太平洋戦争の時期に日本と朝鮮で行われた音楽の統制や普及政策について国民歌の制定と展開様相を中心に考察するものである。

日中戦争が始まり、戦時体裁が強化され、不健全な歌謡を浄化し、時局精神を高めるために、日本や朝鮮ではレコード検閲という「統制政策」が試行され、またこれと同時に時局に相応しい歌を積極的に歌わせる国民歌の「普及政策」が推進された。

国民歌の懸賞募集は政府機関、メディア、国民運動機関が担当の主体になったが、その目的は「国策宣伝」と「国民啓蒙」であった。

朝鮮が日本ともっとも区別される点は、すべての音楽政策の求心点には朝鮮総督府があったことである。専門の演奏者による委嘱や懸賞募集による国民歌の制定も朝鮮総督府の影響のもとにあった朝鮮文芸会と国民総力朝鮮聯盟、そして毎日新聞社が主軸になって行った。朝鮮での国民歌の主題は新東亜建設、太平洋戦争、徴兵制記念、米英撃滅などであり、特に徴兵制讃揚、帝国軍人、半島青年を強調することにより皇民化思想の鼓吹を主な目的とした。

朝鮮で選ばれた国民歌のほかに、日本で選定された国民歌は朝鮮でそのまま国民歌謡、愛国歌、愛国歌謡などの名称で歌われ、様々な音楽会や行事で必須歌唱曲、あるいは国民儀礼の一環としても活用された。このように朝鮮で国民歌は「社会教化」の手段であるのみならず「内鮮一体」という目的が加えられた。